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5월 12일
제2000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마르 16,15. 19-20)



〈그리스도의 승천〉, 벤베누토 티치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나해)

제 1 독서 사도 1,1-11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시편 47(46)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서 에페 1,17-23 <또는 에페 4,1-1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르코 16,15-20 |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15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9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과 독서는 각각 마르코 복음서의 마무리와 사도행전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책 전체를 요약하는 결정적 부분들을 배치하여, 예수님 공생활의 마지막(복음)이 곧 교회의 시작(독서)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 교회의 일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상 생활 동안 갈릴래아나 예루살렘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그 어떤 시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활동하십니다. 이는 복음에서도 분명히 선언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당신께서 행하시던 일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표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독서를 포함한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전하여 주는 동시에, 그 교회가 걸어 여정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현존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부재는 언제나 현존과 연결되고, 떠남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현존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떠남이나 멀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과 더 깊은 유대와 공존의 관계를 맺으려는 도약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함께하시며 당신의 현존과 구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계십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주님 승천 대축일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주님 승천 감사송 중>

인공 지능과 마음의 지혜 온전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도 성찰한 주제인 인공 지능 체계의 발전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술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이 문화적 변화가 선에 봉사하도록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술은 풍요로워져도 인간성은 빈약해질 위험이 있는 이때 우리의 성찰은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을 갖추고 마음의 지혜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새로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온전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길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기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기술적 확장은 사랑 가득한 봉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적대적인 지배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 지능 체계는 무지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민족과 세대 사이의 정보 교류를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거짓인 이야기를 마치 참인 것처럼 믿고 공유하게 만들면서 현실을 왜곡시키는 ‘인지적 오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 지능의 첫 물결인 소셜 미디어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는 인공 지능의 양면성, 곧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경험해 왔습니다. 생성형 인공 지능의 두 번째 단계가 질적 도약을 보여준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잘 이해하고 평가하며 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상황에서 그러하듯이 규제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혁명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인공 지능의 활용이 집단 사고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수집으로, 집단 편집을 통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살아 있는 관계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들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상관관계도 아우르며, 서로를 향한 감수성과 연민과 나눔을 필요로 합니다.

인공 지능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곧 인공 지능의 활용이 현장에서 언론이 하는 역할을 없애기보다 이를 뒷받침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전달자가 각자의 책임을 더 잘 인식하게 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본분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참여하게 할 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사용자들의 존엄성 보호, 플랫폼의 상호 운용성 보장,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태도, 검색 엔진을 위한 알고리즘 작동 기준의 투명성, 정보 처리의 투명성, 익명성의 방패 뒤에 숨은 출처의 추적 가능성, 이미지나 동영상의 진위 판단 여부, 개발도상국의 참여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날이 결정될 것입니다. 인공 지능이 정보 접근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계급들을 만들어 낸다면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인공 지능이 매우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정보 네트워크 안에서 현재 겪고 있는 시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화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증진한다면, 인공 지능은 우리를 더 큰 평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먹잇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기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유로 우리 마음에 자양분을 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였고(집회 1,4 참조), 깨끗한 마음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빛과 예언자로 만듭니다(지혜 7,27 참조). 지혜는 우리가 인공 지능 체계를 온전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봉사하도록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차 헌금

• 본당 단체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2 단체장 회의

• 일시 : 5월 12일(일) 오전 11:30 (A-1,2)

3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5월 12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5월 17일(금) 오후 8시 (A-1,2)

5 성인 견진 교리

• 일시 : 5월 17일(금) 오후 7:30 미사 후 (하상관 #110)
 • 견진식 : 5월 19일(일) 오후 2시
 Church of the Nativity
 (6400 Nativity Ln., Burke, VA 22015)

6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11:30 (A-1,2,3)

7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11:30 (B-3,4)

8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9 2024년 WorkCamp 기금 마련 Car Wash

• 일시 : 5월 19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장소 : 하상관 뒤편 주차장 세차비 : \$15
 • 문의 : 한 모니카 (571) 331-0391

10 용소막 성당 교육관 신축 모금

• 일시 : 5월 19일(일) 성령 강림 대축일
 • 용소막 성당(정남진 안드레아 신부) 교육관 신축을 위한 모금이 있습니다.
 • 미사 후에는 용소막 성당에서 준비한 '청국장 가루'를 가족당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성모성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삶을 통해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며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순명의 삶이 우리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성모의 밤 | 5월 31일(금) 7:30pm

교중미사 예불봉헌

05/12 이번 주	패어팩스 3-3,4구역
05/19 다음 주	라우던 구역

성당 청소

05/12 이번 주	애난데일, 패어팩스 1 구역
05/19 다음 주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교구 황금희년 축제 JUBILEE FEST

• 일시 : 6월 8일(토)
 • 장소 : Warren County Fairgrounds in Front Royal
 • 교구설립 50주년 축하행사로 수천 명 참석 예정
 • 주교님 미사와 헤드라이너 Soul/Gospel Indie 아티스트 Jervis Campbell과 컬트 록밴드의 라이브 음악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 행사는 오후 3:45부터 시작되며 오후 9시 불꽃놀이로 마칩니다. 무료식사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fest/>
 • 참여하시는 분 중 미사 중에 '성모님 상'을 모시고 입장할 가족과 한국어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실 가족을 찾습니다.
5월 12일(일)까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5월 5일(부활 제6주일)

봉헌금	\$ 8,050.00
교무금	\$ 12,100.63
교무금(신용카드)	\$ 1,810.00
감사 헌금	\$ 640.00
온라인 봉헌	\$ 7,270.00
합계	\$ 29,870.6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불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보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KACM TV 하이라이트

2024년 5월 16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5월 17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바다킹 신부의 맘고생 크림 케이크
 [제20회] '의미를 간직한 삶'
 -조명연 마태오 신부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